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세대

(마 11:16-19)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세대'(16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비유로 무관심하고 공격적인 시대의 풍조를 설명하십니다.

1. 피리를 부는 것과 슬피 운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 시대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잔칫날에 피리 부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나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가슴을 치며 곡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 하면서 놀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독한 무관심의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의 풍조인 무관심을 설명하시기 위해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무관심을 넘어 파괴를 위한 공격의 시대

예수님 시대의 또 하나의 풍조는 무감각과 무관심을 넘어서 파괴를 하기 위해 공격을 일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무리 외쳐도 유대인들은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에 무관심했고,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귀신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향하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은둔자처럼 보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비판했다면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좋아해야 할 유대인들은 이것도 비판, 저것도 비판하며 오로지 비판만 일삼았습니다.

3. 천국은 침노 당한다는 의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위 말씀은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천국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야 하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결코 무관심하면 안 되며, 더 나아가 어떤 영역을 침노하는 자처럼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관심과 무감각의 시대적 풍조를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적극적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Generation of which They do not Dance nor Mourn

(Matt. 11:16-19)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is generation"(v. 16) that was mentioned by Jesus in this text was the age of John the Baptist, and Jesus' mission. Jesus compared this generation to the tendency to be indifferent and aggressive,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 places and calling out to others: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mourn.'"

1. The meaning of playing the flute and singing

At the age of Jesus, there weren't instruments for children. That's why they danced to a person's playing the flute at a feast, and followed a singer at a funeral ceremony.

We now live in the midst of a very indifferent generation. By the way, it was not so much different from Jesus time. Jesus compared children's play to not dancing to the flute, and not mourning at a funeral ceremony, in order to explain the indifference of a generation's tendency.

2. The aggressive time for destruction over indifference

The other tendency of Jesus time was that people indulged in attacks in order to destroy the insensibility and indifference. Even though John the Baptist cried out for repentance in the Desert of Judea, the Jews were indifferent from his shouting. Moreover, they said that he who was neither eating nor drinking had a demon, and they attacked and laughed at him. Meanwhile, they criticized Him for eating and drinking toward Jesus who spread the good news of salvation and healed the sick, shared fellowship with people at the table. If they criticized John the Baptist who seemed to be a recluse, they liked Jesus who was close to people. But just as they criticized this or that, they only did criticism habitually.

3. The meaning of the kingdom of heaven would have been forcefully advancing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ibly advancing and forceful men lay hold of it" (Matt.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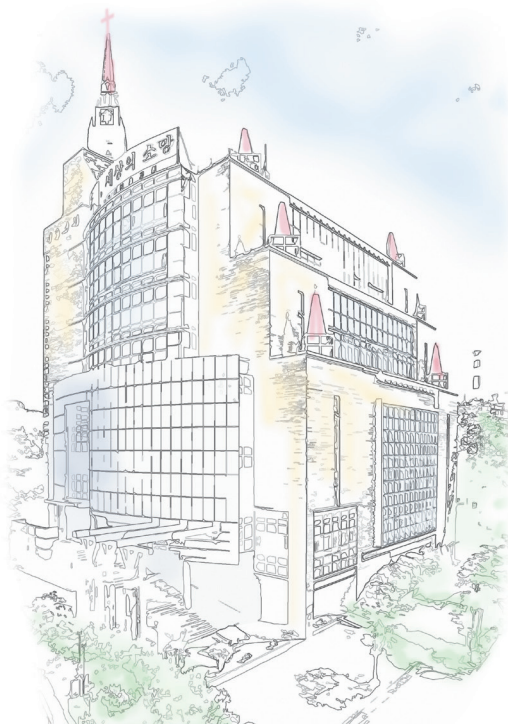
This verse means that only when Jesus who is the owner of salvation opens the door of the heaven. We can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ose who love salvation must strongly knock on the door of heaven, and they, even the last men, will be received by Jesus.

Therefore, we must not be indifferent from salvation. Furthermore, we must enjoy and witness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world.

My beloved Christians,

We should block out the tendency of the age about indifference and insensibility, and just morn and laugh with Jesus. By forcefully knocking the door of heaven,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come God's people and win a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청지기 수련회 은혜 중에 진행 되다

금주는 전도·예배·선교·교육 위원회

2014년도 각 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청지기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이다.

금주는 전도위원회,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청지기수련회가 있다. 각 담당자들은 빠짐없이 참석바라며 각 위원회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전도위원회: 1월21일(화) 오전6시10분, 101호
- 예배위원회: 1월25일(토) 오전10시-오후3시, 교회
- 선교위원회: 1월26일(주) 오후3시-4시50분, 교회
- 교육위원회: 1월26일(주) 오후3시30분-4시30분, 교회

2014년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고등부: 1월 23일(목)~25(토) / 디아스포라부: 25일(토)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2월 21일(금) ~23일(주일)	서울교회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라면	양세라 전도사
유년부			나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	김안성 목사
초등부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최민혁 전도사
중등부	2월 20일(목) ~ 22일(토)	아가페타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노정호 목사
고등부	1월 23일(목) ~ 25일(토)	아가페타운	예수님처럼!	천세종 목사
청년부	2월 6일(목) ~ 8일(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박노철 목사 서준권 목사 장재원 전도사 정대은 전도사
청년2부	2월 28일(금) ~3월1일(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준권 목사
신혼가정공동체	2월 22일(토)	서울교회	아름다운 연합	서준권 목사
사랑부	2월 16일(주일)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박영준 목사
예배다부	2월 15일(토)	서울교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임규현 목사 이영주 목사
디아스포라부	1월 25일(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서명철 목사

1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필사> 권복순 권사 (예배다부)
- <3독> 송옥혜 권사 (9교구)
- <2독> 이경희 권사 (예배다부)
- <1독> 3교구-배재송 집사, 임만도 권사 4교구-김숙연 권사, 백혜숙 권사, 유기찬 집사, 임광우 집사 5교구-김은희 권사, 김혜연 집사, 이남복 권사 6교구-김희진 권사 9교구-이남성 집사 11교구-정미자 집사 13교구-김미성 권사, 이금순 권사 15교구-김인숙2 권사 16교구-임송자 권사

정대은 전도사 부임



정대은 전도사

청년부 지도교역자로 정대은 준전임전도사가 1월 12일 부임 하였다.

- 1977년 3월 19일생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졸 (M.Div)
- 가족: 한규설 사모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명단

- 2구좌: 에스더여전도회
- 1구좌: 장윤기 노애리, 김형성 최금숙, 최원석 박길희, 아브라함선교회, 김승록 전미경, 노병호 홍지나, 전광영 김인숙, 김선태 김옥순
- 도르가전도회, 기호진, 김주현 권은주
- 0.5구좌: 조성배 김성자1, 오지철, 송수찬, 루디아전도회, 정길영, 김선자, 차도훈 남태영, 최형열 김찬진, 황병석 (다음 주 계속)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15)

(문 115) 여호야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답) 열왕기하24:6에 의하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왕이 조상들과 함께 잤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죽어 왕의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하36:5-8은 여호야김이 25세에 (608B.C) 왕위에 올라 11년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바벨론왕 느브갓네살이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1) 이처럼 여호야김은 598B.C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여생을 지냈습니다. 므낫세도 앗수르왕의 군대지휘관들에게 사로잡혀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환난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짐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고 왕위에 다시 앉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하33:11-13)

2) 여호야김은 바벨론에서 귀환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그가 왕위에 다시 올랐는지 모릅니다. 대하36:5-8의 기록은 왕하24:14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604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일이라면 후자는 597년에 여호야긴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기록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의 죽음의 방법과 장소는 왕하24:6에 간단히 기록된 것보다는 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씀하리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렘22:18-19)

이 말씀은 그의 사후 시체 처리가 부끄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598B.C 12월 7일 경에 죽었습니다. 정상적인 매장 대신 그 시체는 죽은 동물들처럼 열린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의 악하고 비참한 통치를 원망하는 시민들에 의해 도시 성벽 밖으로 영구적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주 계속)

<기도와 관련된 용어>

2. 기도드렸습니다(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립니다(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이 동사 '기도하다'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써야 하는데 요즈음 이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와 같이 과거형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5분이나 10분전에 기도를 시작했으므로 간구한 모든 말들은 문법적으로는 이미 과거 또는 현재완료가 되므로 동사 '기도하다'의 과거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도(禱禱)는 글자 그대로 그 핵심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간구다. 간구의 내용은 소원이며 소원은 미래 지향적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소원을, 즉 우리의 바람을 '기도하였습니다.'로 끝낼 수는 없다. 기도의 핵심인 간구의 내용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마무리하는 과거가 아닌 현재로 끝내는 것이 옳다.

기독교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교회와 공동체 모임에서 예배 및 예식, 장례, 기도, 회의, 교회생활에 대한 바른 기독교 용어 사용을 위해 대한예수교 정교회 총회에서 '기독교 용어연구위원회'를 구성, 교회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속에 비성서적, 비신학적, 비기독교적 낱말과 술어등을 조사하여 86회, 87회 총회에서 가결하여 모든 교회가 바른 용어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 교회도 몇 회에 걸쳐 바른 기독교 용어들을 연재한다.

(편집부 주)

1. 당신 →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만일 어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당신이 주신 돈으로 이것을 샀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직접 들으시는 분이므로 2인칭이다. 우리 말 2인칭 '당신'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 없다. '당신'은 다만 3인칭에서는 극존대어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인칭이 될 수 없고,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2인칭에 해당되므로 '당신'이란 호칭은 안된다.



비전2020후원자의 밤을 마치고

비전2020 후원을 감사드립니다



장 덕 집사 (비전2020 차장)

우리 나라에만 주어진 유일한 군선교의 비전을 통해 군을 복음화하여 튼튼한 안보와 국방력을 다져 믿음으로 민족이 하나되어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매년 계속되는 비전

2020운동에 동참하신 서울교회 자매부대와 군목, 민간 교역자, 사관생도, 장병, 가족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 2013년도 군선교보고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13년 4월 10일 육군사관학교 진중세례식을 박노철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엄숙한 가운데 거행하고 세례받은 사관생도들은 미래의 대한민국 군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선택받은 300명의 기도는 용사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거듭난 지도자가 될것입니다.

2013년도에도 6회의 진중 세례/성찬식에 총 참석 인원1,660명 중 805명이 세례를 받은 사관생도, 장



병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한 이 귀한사역을 우리 서울교회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번 후원자의 밤에 특별히 초대된 각부대 장병들이 혹한기 훈련으로 많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서울교회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 원근 각지에서 오신 육군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각 부대 군목사님, 선교사님들과 해병대사령부 중앙교회 신우회, 특별 찬양을 한 해병대 군악대의 주옥같은 연주로 '이 믿음 더욱 군세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비전2020 군선교를 함께

감당하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군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신 각 부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계속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군 선교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대로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영광 돌리시길 기원합니다.



사진 : 오명걸 집사



겨울 수련회 초대이 글

예수님처럼



문 현 성도 (고등부 회장)

살롬! 저희 고등부는 오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아가페타운으로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희 학생회와 고등부 선생님들은 겨울수련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케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수련회, 청

소년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이 있는 수련회, 청소년들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이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담당하신 천세종 목사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고등부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학생들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고등부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비전을 찾은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겨울 수련회 초대이 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우리들의 가을



최현화 성도 (디아스포라부)

디아스포라부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 대학생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자들 중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자매들과 민족복음화와 북한선교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집사님과 권사님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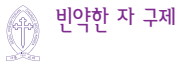
우리 디아스포라부는 2014년 1월 25일(토)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끈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겨울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에는 집사

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아직은 부족하고 미약하여 받기만 해 왔던 디아스포라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한 단계 성숙된 믿음으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번 디아스포라부 겨울 수련회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울부짖음이 저 멀리 북녘 땅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탈북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나눔



유혜진 성도
(영어예배부)

작년 연말에 영어예배부에서 구룡마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다니엘 목사님과 13명의 성도들이 구룡마을에 있는 영광교회와 함께 네 개조로 나누어 가가호호 방문하며 양말, 통조림, 떡 등 작은 정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경계를 받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더 컸습니다.

손자와 단둘이 살고 있는 몸이 불편한 한 할머니는 교회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에 실패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불교를 믿고 있는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추한 방안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는 구룡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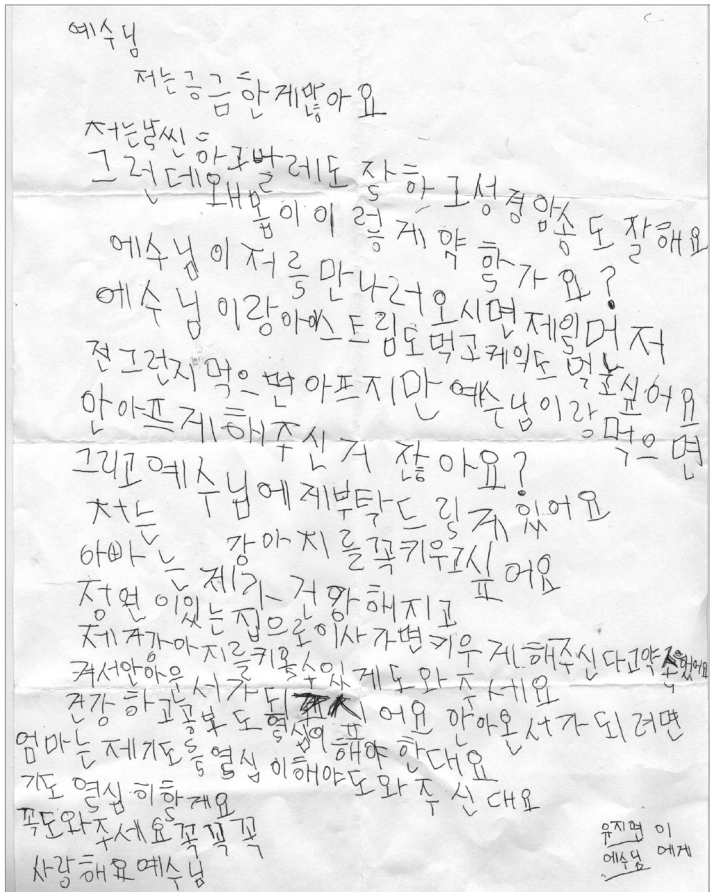
도 저희들을 방안으로 초대하며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맴돌던 한가지 생각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말에 잠시 방문하여 물품만을 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평소에도 꾸준히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쓴 편지



2013년 성경암송대회서 금상을 탄 유지연 어린이가 예수님께 새해 편지를 썼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가는 지연 어린이가 건강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역자, 직통 번호 변경

- 서명철 목 사 : 02) 2193-8882
- 장석남 목 사 : 02) 2193-8884
- 황 광 목 사 : 02) 2193-8881
- 유문건 목 사 : 02) 2193-8886
- 박영준 목 사 : 02) 2193-8887
- 조원영 목 사 : 02) 2193-8888
- 서준권 목 사 : 02) 2193-8885
- 배경애 전도사 : 02) 2193-8883
- 김안성 목 사 : 02) 2193-8893
- 최민혁 전도사 : 02) 2193-8894
- 구본혜 전도사 : 02) 2193-8895
- 장재원 전도사 : 02) 2193-8890
- 정대은 전도사 : 02) 2193-8889

어린이 옷, 학용품 보내주세요

오는 2월 3일 미안마로 떠나는 비전트립팀에서 어린이 옷, 학용품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트립팀은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물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104호에 수거함이 상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문의 010-8268-7668 (김순영 권사)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1일(화) 백양세미나 및 신학인의 방 행사에 참석한다.
- 13교구 감성성집사. NH농협은행 청와대지점장 발령
- 주간식당봉사 : 바울선교회(1.19)멜리아선교회(1.26)
- 금주의 식사 : 박두호 장로 한성옥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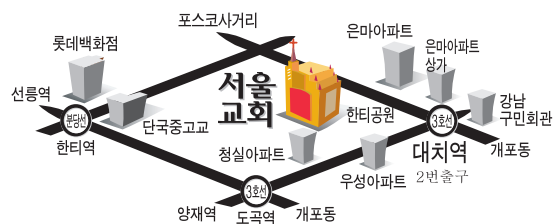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계속 되는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그리고 청지기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지도록
2. 말씀과 기도훈련으로 승리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 시간시간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3. 살리당을 보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마음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전 1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